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69호(2000/9/22)

인 권 은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온라인을
통제하지
말라!

통신공간의
국보법,
“통/신/질/서
확/립/법”
반대!

<월간 말> 10월호 박여선 기자

사람이야기 하나

이루실이 7년, 하루소식 7년

김동한(법과인권연구소장)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권운동 사랑방'! 사랑방에 걸맞는 진담성찬 - 하루소식!

그 하루소식이 7년이 되었다. 눈물과 분노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세계 최초의 팩시밀리 신문! 아린 가슴 쓰다듬고 저린 머리 질끈 매고 오늘도 밤을 지새 인권침해 현장의 지킴이들이 안쓰럽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되고 언제쯤 우리는 모두 웃는 사람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그 날이 오면 1945년 8월 15일 분단인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덩실덩실 추다만 춤을 아주 아주 신나게 추어야겠는데...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하루소식 10년이 되기 전에 올 수 있으리라 믿고 싶다. 하루소식이 7년을 하루같이 열심이었듯이 그렇게 모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꿈만은 아니겠지. 미친 늙은이로 비웃음을 샀던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반 늦봄' 무리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들을 증오했던 지난날을 기분 좋게 접고 순간의 패자가 역사의 승자임을 큰 가슴으로 아울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권을 흠치고 있는 인권운동 귀족들도 불쌍히 봐주자. 인권과 변호사는 같은 말로 국민들에게 당연히 인식되어야 함에도 '인권변호사'가 따로 만들어져 자랑스레 쓰여지고 있는 이 세상이 한심하다. 그래도 변호사의 본분을 지키려고 애쓰는 외눈박이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다.

하루살이는 오래 살아야 하루를 산다. 하루소식도 하루는 살겠다고 하루소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일까? 제도권 신문들이 대부분 00일보, 00신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일보는 하루소식의 왜놈말일 터이고 신문도 새 소식이라고 다른 나라 말이다. 그래서 국민의 신문이라는 한겨레 신문은 어느 때부터 인가 슬그머니 신문이라는 말을 빼버렸다. 신문에는 빠른 소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을 텐데 부끄럽게도 한겨레는 여러 이유로 빠르기엔 처음부터 땡탕이었다. 빠르기로 겨뤄 볼 수 없으니 사실보도에 목숨을 걸 수밖에. 그런데 인권이 짓밟힌 사건에 관한 한 하루소식을 받아쓰고 있으니 한겨레의 창피일까? 하루소식의 자랑일까? 아니다. 어깨 걸고 함께 가는 것이다. 바라건대 한겨레가 제대로 더 자세히 더 많이 하루소식을 받아 써주었으면 한다. 그러고 보니 하루소식은 그 날만의 소식이 아니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날마다 소식인 것이다.

인권대통령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펼친 인권정책은 한마디로 실망이다. 지난 정부들과 비교할 때 크게 보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로 물러섰거나 제자리 걸음일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 정부와 여당이다. 통일과 인권은 함께 가는 것이지 서로 반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사람들 은다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막무가내로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아직도 시내 곳곳에 닭장차가 즐비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집시법을 개악하여 주요 기관 가까운 곳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히 위헌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매항리 폭격훈련장 폐쇄집회를 우리 경찰이 아주 잘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땅이 참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도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버젓이 세계곳곳에 알리려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아! 불쌍하고 한심하구나. 언제쯤 우리는 자주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반민주 반통일 세력의 대변인을 스스로 맡겠다고 나선 조선일보가 독재, 분단, 천외세의 화신인 이승만, 박정희 만만세를 외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그 반대편에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는 데 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오느라 힘이 드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데에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처리하여야 우리 나라의 앞날 희망이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군사독재시절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이 또다시 집권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뒷걸음질치는 후진국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모든 일이 지역논리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 인권대통령에 노벨 평화상이 어울리거나 하겠습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인권을 침해당한 대통령'이지 '인권보장에 애쓴 대통령'으로 불려지기엔 아직 모자란다고 본다.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농성현장에서 진압·해산하기 위해 들이닥친 경찰들이 보여준 무자비한 만행은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아닌 가진 자들의 정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일 따름이다.

자유권 보장이 제자리 또는 뒷걸음인데 사회권 보장은 오죽하겠는가? 양지마을 사건이나 예바다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아예 인권정책은 없는 것 같다. 경제위기극복과 대북화해정책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다.

그렇다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다더냐? 라는 유행가 가사에서 잘 났다고 거덜먹거리는 가진자들은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인권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소식에서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고 피울음을 울어야 한다. 하루소식은 모래성같은 경제성장에 정신 못 차리는 가진자들(하루살이들)을 깨끗이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하루소식이 해야 할 큰 일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의 7년이 까발림으로 읽는 이들에게 느껴졌다면 앞으로의 7년은 인권 주인 찾아주기 또는 인권 제자리찾기에 읽는 이들과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하루소식은 하루살이가 아니어야 하고 날마다 소식이어야 하며 인권침해사건이 완전히 매듭 지어질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언제나 소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인권 세상 사람사랑세상이 만들어져 하루소식이 하루살이로 사라지는 그 날을 꿈꾸며 다시 고개를 들어 이 세상을 보자.



사람이야기  두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워크숍 참가기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 5일부터 1박 2일 동안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가 열렸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각계 인권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대위가 마련한 '인권위원회법'(안)의 현장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토론회는 8월말 법무부가 다시 민간기구 형태의 인권위원회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다시금 인권법안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여서 특히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2백여 명이 넘는 전국의 각계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한 것만 해도 그렇다. 사랑방에서도 서준식 대표님을 비롯한 6명의 활동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였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소수의 관심에 기반한 제한된 운동에 국한되어 왔던 국가인권기구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뿌듯했다. 물론 각계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각 단체 활동으로 안부도 확인하지 못했던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토론회가 준 좋은 선물이었다.

토론회는 크게 세 주제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조직 구성에 관한 쟁점 토론 △여성, 아동, 형사피의자, 복지시설, 노동, 매매춘, 재소자, 프라이버시 등 총 18개 인권분야에서 국가인권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16대 국회 정세분석과 국가인권기구 투쟁방안의 순으로 진행된 1박 2일의 일정은 빠듯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공대위 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왔던 질문들, 즉 "한국사회 인권현실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왜 필요하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권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합의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각계 인권분야에서 국가인권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인권기구가 확보해야 할 위상과 권한을 제안하는 과정은 그동안 법안을 놓고 진행되어 왔던 추상적인 논쟁이 인권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구체적 논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전체 참가자 가운데 구성비율은 낮았지만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이 상당수 이상 참여했던 것도 공대위 활동이 전국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참가했던 활동가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입법예고된 법무부 인권법(안) 역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인권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그 권한과 독립성에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인권기구를 설립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인권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법무부의 악채 인권위 설립 기도를 단호히 저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법안을 재정비한 후, 입법청원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또다시 좌초되지 않고 인권단체들과 국민의 환영 속에 현실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인사드려요!!

"사랑방의 정신과 태도를 방부제 삼아"

류은숙(신임 사무국장)

제가 92년 8월 사랑방 준비 모임에 발을 들여놓은 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것이 더 많았고 채워진 부분보다는 모자란 부분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사무국장이라는 숙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5년여 동안 사무국장으로 눈코 뜰 새 없으셨던 박래군 선배님께서 정책기획실에서 사랑방의 중·장기적 과제를 고민하시게 됩니다. 제게 부족한 면이 많지만 서 대표님과 박래군 선배님의 지도 아래서 사랑방 성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원활유이자 업무의 어려움을 나눠 갖는 깎둑이 구실을 하려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수행할 일들이 제 자신에게 뿐 아니라 사랑방 성원들, 참여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의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이 지켜온 운동 정신과 태도를 방부제 삼아 사랑방이 펼칠 인권운동의 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을 잘 골라 담도록 항상 경계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홀쏬이와 똥똥이"

심태섭(사랑방 신임활동가)

6월부터인가 사랑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봤을 만한 광경 중 하나는, 영 어울리지 않는 '홀쏬이와 똥똥이'가 4층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며 서로 '노닥거리' 모습이었을 게다. 그러나, 그 '노닥거리' 두 사람(심태섭, 기명문)이 9월부터 사랑방의 상임활동가가 됐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 그래서인지, 사람사랑 편집부는 그 동갑내기 두 사람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는 글을 써오라는 지침을 내렸고, 나는 그 두 사람 중 한 명인 거다.

그런데, 내게 할당된 지면이 원고지 4매 정도이다 보니, 일단은 대표적인 나의 외모적 특성만을 소개코자 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단번에 던지는 말은 "눈이 작다"는 말이다. 그렇다. 나는 눈이 작다. 일설에는 어머니께서 나를 수태하시고 잉어를 고아 드실 때 그 눈을 그냥 드시지 않고, 짜서 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말을 확인할 길은 도무지 없다. 현대의 눈부신 과학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니까... 아무튼 눈이 작다는 것이 나의 외모적 특성이다. 이후로 임산부들에게 생선류의 음식을 제공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에 입방한지 4달이 다 되어간다. 오랜만에 겪고 있는 즐거운 '새내기' 생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귀중한 공간이라 여겨지는 사랑방 살림의 공간. 아마 인권에도 냄새라는 것이 있다면 분명 사랑방 냄새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이 살림살이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 열심히 살아내는 것만을 바라는 내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 "지금 안녕하십니까?"라고... ('홀쏬이와 똥똥이' 중 내가 어느 편인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사/업/보/고

(2000년 8월 넷째 주부터 2000년 9월 셋째 주까지)

인권영화제

제5회 인권영화제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200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화여대 법정대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1996년 인권영화제가 처음 개최되었을 때 참석하셨던 분들이면 잘 아실 겁니다. 이대 총학생회와 법대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최의사를 보이며 학교 당국에 섭외해 무사히 개최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많은 분들의 성원이 올해도 신화처럼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권영화제는 올해도 여전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협력과 그 보다 더 많은 후원회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상시적으로 영화제 사무국과 결합해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번역 자봉은 모두 20여명에 이릅니다. 2번의 작품선정 시사회를 거쳐 상영 결정된 작품은 약 15편 내외입니다. 국내 작품은 9월 30일까지 출품 마감하며 그 이후에 선정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내상영작은 '올해의 인권영화상'의 후보작이 될 것입니다. 해외작은 20편 내외이며 국내작은 아직 선정 편수가 미정인데 총상영작은 30편을 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유는 상영 공간이 충분치 않고, 한 작품에 대한 상영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 체 게바라를 인권영화제에서

확정작 중 <대지의 소금 Salt of the Earth>과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 Ernesto

che Guevara: Bolivia Diary> 두 편을 소개합니다

<대지의 소금>은 미국의 좌익사냥이 극악무도했던 매카시 시대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이 모여 만든 독립영화입니다. 뉴멕시코 탄광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야기의 줄거리로 삼고 있는 이 영화는 출연 배우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며 시나리오 작업에도 함께 참여한 미국관 '네오리얼리즘'영화입니다. 미국에서는 마치 우리의 <파업전야>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독립영화'의 다양한 의미를 충족시키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대지의 소금>의 제작의미를 30년후 다시 반추해 보는 다큐멘터리 <처벌에 맞춘 범죄 Crime to fit the punishment>를 함께 상영해 영화 감상의 흥미를 한층 더 돋궂 보았습니다.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는 게바라의 마지막 생애인 볼리비아 전투를 그의 마지막 일기를 따라 추적해 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90년대 세계 다큐멘터리의 진일보시켰다고 평가받는 스위스 감독 리차드 던도의 96년 작품입니다. 게바라에 대한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이 작품은 게바라의 생전의 모습이나 사진 등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그가 치열하게 마지막을 살다간 그 장소들을 질식할 정도로 조용히 카메라로 다시 추적해 보는 작품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게바라 생애 마지막을 동행한 빨치산, 그의 곁을 스쳐지나간 수많은 인연들을 다시 만나보게 됩니다. 작품은 시종일관 차분하고 냉정함을 잃지 않지만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드러나는 내적 폭발성은 20세기 최고의 빨치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 인권영화제 홈페이지 준비중!

5회 인권영화제를 앞두고 인권영화제 홈페이지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인권영화제 홈페이지는 영화제와 상영작에 대한 정보와 관련 소식 이외에도 네티즌이 뽑는 '올해의 인권영화상' 등 알차고 재미있게 꾸며질 계획입니다.

(<http://www.sarangbang.or.kr/hrfilm>)

□ 후원회원 모집

아시죠? 인권영화제는 한사람 한사람의 후원이 모여져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올해 역시 인권영화제 개최를 위해 많은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10,000원/20,000원 / 100,000원 이고요, 후원회원께서는 후원금 액수에 따라 인권영화제 자료집, 영화제 상영작품 등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국민 822-21-0276-824(서준식) / 농협 033-02-119388(서준식) / 우체국 010892-0079460(김정아 인권영화제) / 제일 110-20-342272(서준식)

□ 상영작 대여, 잠깐 쉽니다.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대여하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어떻게하죠? 대여 작품 회수에 차질을 빚어 '상영작 대여'를 5회 인권영화제 행사시까지 일시 중단합니다. 이 점 사랑방 회원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영작 판매 업무는 정상으로 진행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회권위원회

□ 유엔에 한국의 사회권 실태 약식보고서 제출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유엔 사회권위

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사전 검토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는 내년 본 심의 때 중심적으로 논의될 주제들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우리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민변, 민중의료연합, 한국도시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를 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였던 이성훈 파스 로마나(제네바 소재) 사무국장이 한국의 사회단체들을 대표해 회의 첫날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져 마치 청문회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류적인 인식인 데 반해 민간단체 보고서는 매우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고서의 일차적인 성과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에게 확신을 주기에는 우리들이 제시한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여러 사안들에 걸쳐 보충 설명을 요청했고, 특히 보고서에 인용된 여러 통계의 배경과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물론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설명하지 못한 점도 작용을 했겠죠.

1시간 가량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첫째는 IMF의 구조조정이 한국에서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부의 대처방안이 인권의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둘째, 정부는 한국경제가 호전되면서 사회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민간단체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주된 걸림돌이고 어떠한 대안적인 정책이 가

능한가?

회의 마지막날인 8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38개항으로 이뤄진 질의서(List of issues)를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질의서에는 IMF의 구조조정이 한국의 사회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시적으로 질문하는 항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이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년 본 심의(4-5월) 때 활용될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보낸 질의서는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2000년 간접고용실태보고서 발간

‘2000년 간접고용실태보고서’가 9월 20일 발간됐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파견철폐 공대위(‘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펴낸 이번 보고서의 일부를 집필했습니다.

간접고용이란 일을 시키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근로관계형태를 말합니다. 그 형태는 파견·용역·도급·사내하청·외주 등 다양한데, 고용과 노동력 사용의 분리에 따른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가 공통적입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간접고용이 갖고 있는 반인권적 문제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파견법을 도입하면 불법파견을 막을 수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난 오늘날 파견법 6조 3항,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기업이 노동자들을 2년 주기로 해고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이중고용은 ‘중간착취→저임금→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이라는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를 파견노동자들에게 씌웁니다.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건강은 노동력이 파괴될 정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고용의 확대는 특히 기존에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던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지위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견근로 대상 업무 가운데 다수가 여성인력의 취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들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권 4번째 워크숍 -생명공학기술과 인권

‘생명공학기술과 인권’이란 주제로 8월 29일 사회권위원회의 네 번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회권위원회의 일원인 김병수 씨가 발제를 했는데, 전공자이자 과학기술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매우 풍부한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휴먼게놈프로젝트의 초안 발표로 식량난 해결, 불치병의 치료와 예방, 수명 연장 등 기대가 높아지는 듯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과장된 기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구요. 하지만 과연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한다고 위와 같은 인류의 숙원들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발제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생명공학의 발전이 제기하는 인권적 문제를 소개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의 농업지배 확대와 제3세계 농민들의 빈곤화 문제, 개인유전정보의 유출과 유전자 차별의 문제, 인간 유전체를 상품화하는 문제가 그 예들이었죠. 이같은 문제들은 생명공학기술 나아가 과학기술의 방향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거나 사

회와 무관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을 거부할 때 가능한 것이겠죠.

좀더 인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과학기술을 만들어 가는 것, 과학기술자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 5차 워크샵 - 생산적복지의 허구성

5차 사회보장권에 대한 워크샵은 민중복지연대(준)의 한진 씨께서 발제하였습니다. 민중복지연대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폭로하면서 직접적인 노동조직과의 연결망 확보를 주요한 대응책으로 잡아 구체적인 의제를 구성하고자 하여 지난 6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우선 한진 씨는 복지라는 개념의 양면성-생존투쟁과 자본주의의 구축강화-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전민중적인 연대망의 확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운동과의 차별성, 복지의 개념, 조직화의 문제,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중복지 향상을 위한 운동적 관점에 합의하고 좀더 구체적인 의제들을 찾아가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정은 자원활동가)

□ 빈곤팀 보고서 - 산 넘어 산

현재 사회권 위원회 빈곤팀은 보고서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안이 제출되어야 할 지난 15일에 보고서의 방향과 성격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열띤 토론을 거쳤습니다. 토론결과 보고서의 방향을 ▲인권의 시각에서 본 빈곤(빈곤문제는 곧 인권문제임을 밝히고 세계화 속에서 빈곤이 가속화, 구조화되는 면을 살펴본다) ▲세계화와 빈곤현실(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대표자격인 IMF와 WB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빈곤을 초래하는지 남미, 한

국, 아프리카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셈 개최가 불과 1달 남짓한 상황에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 끈을 바짝 조이려 합니다.

인권자료정보실

드디어 인권정보·자료실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로 접속하신후 인권정보·자료실(www.sarangbang.or.kr/infor)에 들어오셔서 '자료찾기'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찾기'는 주제어, 단어, 저자, 출처/출판사, 발행일 검색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단어검색은 제목과 주요내용에 포함된 단어가 검색되어 자료가 나타납니다. '주제별찾기'는 자료실의 대 분류체계에 따라 크게 인권일반, 소수자, 국제, 시민·정치적권리, 경제·사회·문화적권리, 남한인권, 북한인권, 특별주제로 분류되어 있고 각 주제는 다시 소 분류체계로 나뉩니다. '주제별찾기'는 정확한 제목을 모르시는 경우나 막연히 자료를 찾을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세밀하고 정교한 자료찾기를 위해 검색방식은 모두 복수검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일주일 단위로 등록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이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새로운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료발송 서비스는 원하시는 자료를 찾은 후에 '자료신청'에 목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료목록과 받으실 분의 주소와 입금이 확인되면 발송하고 등록일부터 받으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이내입니다. (복사비와 운송요금은 자료를 요청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사/랑/방/동/정

■ 사랑방 업무 재배치

지난 8월 사랑방 MT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추선연휴 이후부터 일부 사랑방 성원들의 업무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뭐니 뭐니해도 5년여 동안 사무국장직을 수행해오던 박래군 씨가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로 사랑방과 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고민해야 할 부서이다 보니 박래군 정책기획실장의 짐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신입 사무국장인 류은숙 씨는 인권교육실을 겸임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업무과약에 들어간 류은숙 신입 사무국장은 요즘 사람 만나는데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소식 편집인은 이창조 씨가 1년여 만에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이창조씨는 하루소식을 4년이나 만들어온 베테랑입니다. 이창조 씨의 총무직 바턴은 잠시간의 휴식기간을 갖고 지난 8월에 복귀한 유해정 씨가 이어받게 되었는데, 유해정 씨는 총무 일과 인권영화제 업무를 함께 합니다.

■ 사랑방 신입방원- 심태섭, 기명문

사랑방에 오랫동안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앞선 글에서도 보셨듯이 요즘 사랑방에는 '홀쭉이와 뚱뚱이'가 출연을 했는데, 심태섭 씨와 기명문 씨는 지난 6월부터 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시작, 지난 9월 3일부로 사랑방 상임활동가가 되었습니다. 학번과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자원활동기간에도 낯다른 우정(?)을 자랑했던 이들은 요즘엔 신입동기라는 이유로 더욱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는데, 기명문 씨는 하루소식과

홈페이지 관리를, 심태섭 씨는 자유권위원회와 하루소식 전문기자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 사랑방 활동가, 컴퓨터에 눈뜨다?

지난 9월 17일 진보네트워크 교육장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교육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김정희 씨와 홈페이지 지원팀에서 자원활동하고 계신 신호승(hsshin@dig.co.kr) 씨가 '윈도우와 인터넷, HTML의 기초'를 강의했고, 이날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과 함께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의 원칙과 '통신질서확립법'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의 통제와 감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이 나눠주려는 강사의 욕심과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려는 학생들의 열정이 엇갈려 준비된 5시간이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날 교육은 15명의 사랑방 활동가들이 오랜만에 사무실을 벗어나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되었고, 교육이 끝난 뒤에도 서준식 대표님의 넉넉한 뒤풀이 후원금 덕분에 맛난 저녁과 시원한 맥주 한잔씩을 가볍게 비웠습니다.

결혼 6주년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방 활동가들을 위해 힘들게 시간을 내어주신 신호승님과 컴퓨터 관련 서적을 사랑방에 기증해 주신 길벗출판사 이지연 씨께 감사드립니다.

■ 서준식 대표, 새 사무실에 등지

현 명륜동 사무실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삼선교에 서준식 대표의 새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서 대표님의 구상은 다음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 대표님의 새 연락처는 3675-5363입니다.

2000년 8월 회계 보고

(2000년 8월 16일 - 9월 17일)

이월금 : 884,110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6,857,260원	사업비	1,351,140원
-하루소식	3,551,130원	-하루소식	121,910원
구독료(151명)	3,029,710	-합본호 제작 및 발송	848,160원
하루소식 기사 배급	469,520	-자유권위원회	3,400원
인권시평 배급	51,900	-사회권위원회	110,000원
-간행물 및 자료판매	142,230원	-인권교육실	330원
인권교육길잡이	2권	-취재비	220,000원
인간답게 살 권리	3권	-후원회원 소식지	47,340원
아시아의 인권교육	1권	활동비	3,910,000원
하루소식합본호	2권	사무실유지비	1,056,670원
-인권교육실	3,000,000원	통신비	1,171,020원
번역료	3,000,000	-전화, 팩스	936,630
-자료복사비	15,900원	-통신, 인터넷	234,390
-강연료	148,000원	사무비품	502,560원
후원금	2,789,850원	사무국 식비	320,960원
-정기회비	2,469,850	생활비	108,520원
-특별후원금	320,000	부채상환	1,000,000원
활동가 기여금	450,000원	기타	114,470원
기타	24,490원	-구 인권시평필진 답례 선물	51,000
-은행이자	22,490	-정기간행물 구독료	40,000
-기타	2,000	-진보넷 교육실 대관료	20,000
		-기타	3,470
총수입:	10,121,600원	총지출:	9,535,340원
잔액:			1,470,370원
현 부채:			1,000,000원

특별사업기금 적립액 : 4,480,810원

이 기금은 불심검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분들의 승소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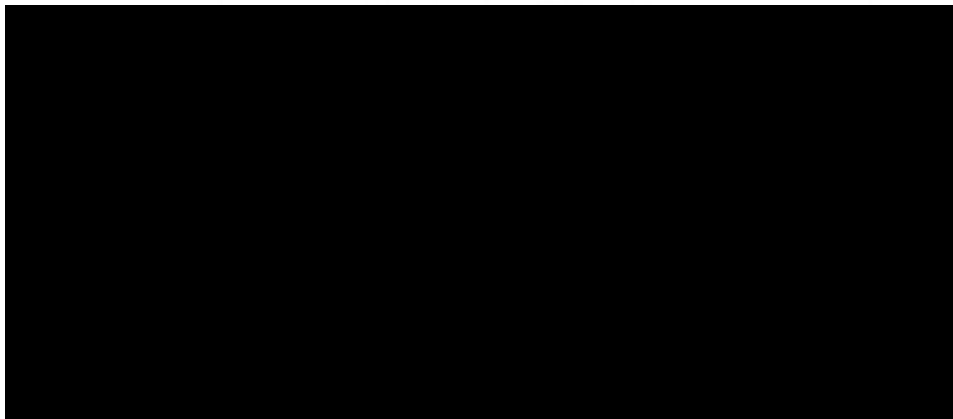
사랑방이 진행하는 특별사업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2000년 8월 재정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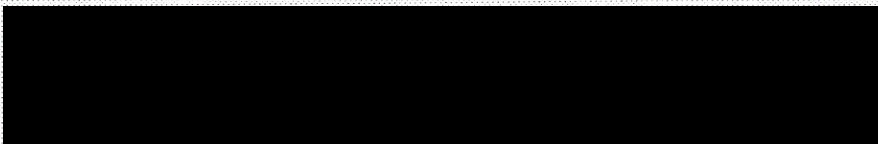
_____님과 익명의 후원자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인권교육실이 번역·출판할 예정인 『21세기를 위한 인권교육』의 번역료 일부를 이번 달에 출판사에서 받았습니다. 이중 일부액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
- 하루소식 기자로 활동중인 자원활동가들에게 취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사랑방 봉투 제작과 프린터 잉크 구입으로 인해 사무비품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하루소식 인권시평을 맡아주셨던 시평필진 분들께 칠레전투 1질 등 인권비디오를 보내드렸습니다.
- 2000년 1월~6월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묶어낸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발간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 지난달에는 특별사업기금에 대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 광주 나눔의 집에서 10개월 째 꾸준히 쌀을 보내주셔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를 및 납부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제작된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역시 많이 알려주십시오.

< 8월 후원회비 납부 감사합니다>(무순)



후원회비 납부계좌



문의: 종무 유해정(02-741-5363)